

# 작곡가 정추의 인생 '나의 음악, 나의 조국'

ACC, 정추 탄생 100주년 특별전 22일~5월28일 아시아문화박물관 앙람동서 태어나 러시아서 유학

남구 앙람동 출신 대표 예술가족을 꼽으라면 정준채(1917~1980) 영화감독, 정추(1923~2013) 작곡가, 정근(1930~2015) 동요작곡가 등 3형제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한영화의 아버지'로 일컫는 정준채와 '검은 머리 차이콥스키'로 불리는 정추는 한국전쟁 전 월북해 이후 예술세계를 개척했으며, 정근은 월북한 두 형으로 인해 연좌제 고통을 겪었음에도 동요 작곡가로 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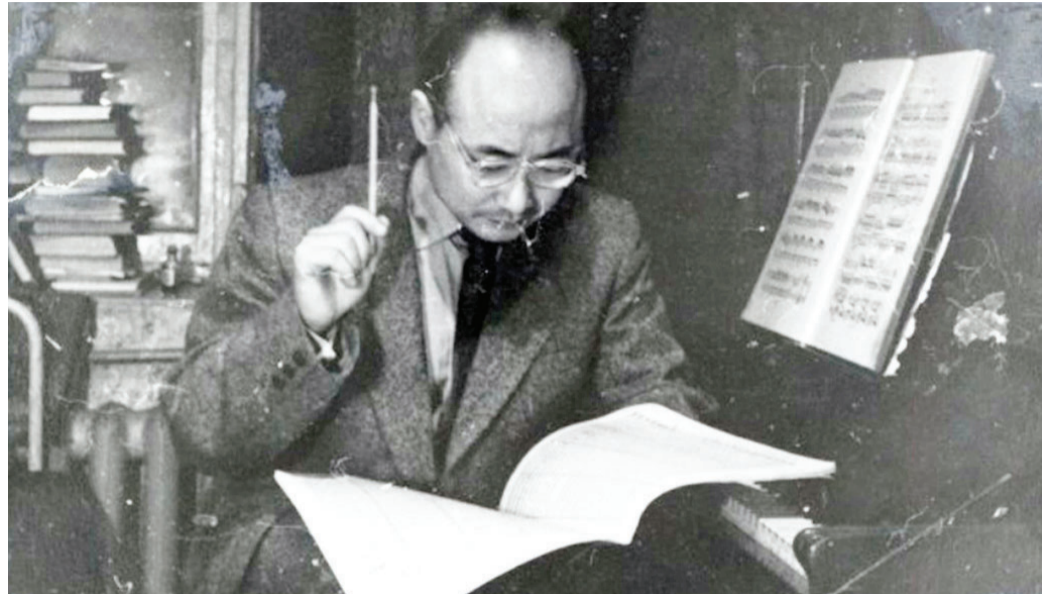
올해는 정추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1923년 광주 앙람동에서 태어난 정추는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4대 제자로 알려져 있다. 차이콥스키음악원 졸업 작품으로 학교 역사상 최초 만점을 받은 '조국'을 작곡했다. 이후 '검은 머리 차이콥스키'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추앙을 받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정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마련했다. 오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1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나의 음악, 나의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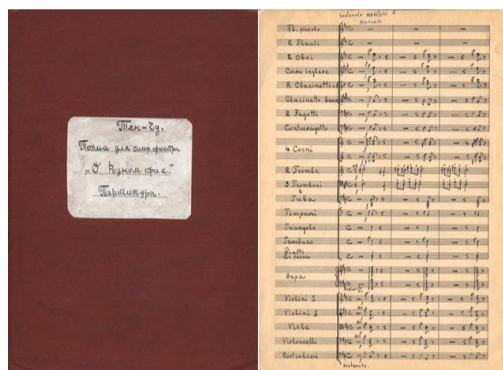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전시는 굴곡진 역사 속에서 망명을 선택한 '음악인류학자' 정추의 기록과 음악을 통해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조명하는 자리다. 생전에 그가 했던 "내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추는 삶의 연대기가 말해주듯 '경계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한국에서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거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존경받는 작곡가로, 고려인 가요 채록을 통해서 한민족음악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음악연구 선구자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성장 배경에 초점을 맞춘 1부에서는 1923년부터 1946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예술가 집안의 내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앙람동에서 태어난 정추는 외삼촌 정석호의 영향으로



생전에 작곡가로 활동하던 당시의 정추의 모습. (ACC제공)



정추가 펴낸 악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다. 정석호는 베를린의 슈테른 콘서바토리를 다녔던 인텔리였다.

학창 시절 정추의 애국심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발발한다. 광주교보에 재학 중이던 정추는 일본인 배속장교 배척사건으로 퇴학을 당한다. 이후 양정고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음악을 매개로 독립의 꿈을 키워나간다.

2부(1946~1958)는 음악의 길로 나아가는 시기를 다룬다. 1946년 형을 따라 월북한 정추는 평양 국립영화촬영소 음악감독으로 일한다. 평양노어대학에서 러시아를 공부하고 이후 국비정학생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작곡이론 공부를 시작한다.

알렉산드르 교수 지도를 받으며 한국적인

선율을 연구하고 한민족 정서를 담은 '조국'을 발표한다. 이 시기 그는 김소월의 시를 모티브로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도 발표한다. 악보를 출판하며 작곡가 동맹에서도 입지를 다지는 등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

음악인류학자로 열정을 불태우는 시기, 즉 제3부는 195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삶을 담았다.

정추는 연금대대로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며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에트연방 망명을 선택한 것. 카자흐스탄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고려인가요 채록을 시작한다. 특히 그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고려인가요를 작곡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그는 1068곡의 고려인가요 가사와 500곡 가량의 악보를 채보하기도 했다.

한편 이강현 ACC 전당장은 "정추의 인생을 통해 오늘의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 이주 등으로 대변되는 근현대사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추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물론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시간은 화-일(10시-오후 6시), 수-토(오전 10시-오후 8시)이며 월요일 휴관.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슈만



신수경



최현호

## '피아노, 슈만을 만나다'

전남대 피아노 교수음악회, 27~31일 예향홀

전남대 피아노 교수음악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오후 7시30분)까지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교수음악회에서는 32곡에 달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공연을 펼쳐왔다.

올해 선택한 작곡가는 독일 출신의 로버트 슈만(1810~1856). '피아노, 슈만을 만나다'를 주제로 5일에 걸쳐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작곡가이자 음악 평론가,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했던 슈만은 피아노협주곡을 비롯해 다양한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특히 슈만의 곡은 역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아내 클라라가 대부분 초연했다.

이번 공연에는 신수경 음악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에 출강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출연한다.

첫날무대에는 진강우·안소연·김하은이 무대에 올라 '교향적 연습곡', '꽃의 노래', '크라이슬레리아나' 등을 들려준다.

28일의 레퍼토리는 '나비' '환상소곡집', '환상곡 C장조'로 각각 이수빈·윤수정·신수경이 연주를 들려준다.

29일에는 최현호·송수미·김소영이 출연해 '유모레스크', '소나타 1번', '소나타 2번'을 연주하며 30일에는 이진현·최현아·정민정이 '아라베스크 C장조', '다비드 동맹 무곡', '사육제'를 선사한다.

마지막 날의 레퍼토리는 '어린이 정경', '세 개의 로망스', '숲의 정경', '빈 사육제'로 임기욱·조민정·백한울·이철민이 연주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30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 '악단광칠' 초청공연...25일 진악당

'유쾌하고 강렬한 국악 사운드를 만나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국악그룹 '악단광칠'이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을 찾아 온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리는 토요일 공연에 악단광칠을 초청했다.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악단광칠은 황해도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는 그룹이다.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 작품을 만드는 악단광칠은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록 밴드와 같은 강렬함을 선사한다.

공연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곡 '와대바'로 문을 연다. 이어 황해도에서 전승되는 만수대타국에서 영감을 얻은 '리크나우그나', 서해안 배연신곡의 옛노래를 재해석한 '어차', 북청사자놀음의 장단과 통소 가락을 모티브로한 '복쟁', 악기를

과 노래의 강렬한 사운드가 어우러진 '무진' 등이 펼쳐진다.

피날레 무대는 전통적인 '문'에서 영감을 얻은 곡으로 관객들이 함께 춤을 추는 현대판 강강술래를 떠올린 'MOON'이 장식한다.

출연진은 보컬을 맡은 홍옥·유월, 피리·생황의 이만월, 대금의 김억대 등으로 아쟁, 가야금, 타악 등이 어우러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 관람과 더불어 진악당(공연장) 로비에서는 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61-540-40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라비앙 로즈'

## 프랑스 뮤지션 공연 후 프랑스 영화 감상

벤자민 피아트 공연·'라비앙 로즈' 상영, 4월1일 광주극장

'프랑스 뮤지션의 공연과 프랑스 영화를 만나다.' 광주극장과 광주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 뮤지션 벤자민 피아트의 '엘도라도 투어' 콘서트를 4월1일 오후 5시 20분 개최한다. 콘서트 후에는 프랑스 영화 '라비앙 로즈' (오후 7시)도 상영한다.

세계의 프랑스어를 기념하기 위한 '프랑코포니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인 벤자민 피아트는 프랑스 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에서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음악에 영감을 받

아 10대 시절부터 자신만의 노래를 작곡한 벤자민 피아트는 데뷔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약 300회의 콘서트를 진행했다. 2013년 첫 번째 앨범 'Boite a Musique'을 발매 한 후 포크 색깔을 띤 트리오를 결성해 수많은 무대에 섰다.

그는 2020년 라틴 아메리카 투어에서 영감을 받고 돌아온 후 라틴 멜로디와 춤을 결합한 앨범 '엘도라도(Eldorado)'를 발매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감성 가득한 가사와 생기 넘치는 리듬의 앨범 'Eldorado' 수록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일렉기타리스트 쥘 모



뮤지션 벤자민 피아트

로가 함께 출연한다.

콘서트 후에는 '상상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그린 영화 '라비앙 로즈'가 상영된다. 뛰어난 연기로 에디트 피아프를 완벽하게 재현한 배우 마리오 코피야르의 연기가 일품이며 '사랑의 찬가', '장밋빛 인생' 등 그의 히트곡도 들을 수 있다.

관람료(콘서트+영화)는 예매 2만원, 당일 예매 2만 5000원, 후원회원 1만 5000원. 문의 062-224-585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참여 뮤지션 공모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광주 오월의 노래는 한국 민주주의의 향토사, 대중음악사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장르적인 흐름이 됐다.

1980년 5월 항쟁의 현장을 5·18민주광장에서 는 해마다 오월 한달 동안 음악회가 열린다.

5·18 민주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에 참여할 뮤지션을 선발하는 공모가 개최된다.

5·18민주항쟁 이후 전국각지의 많은 음악가들은 5·18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카톨릭센터(현 5·18기록관), 금남로 일대에서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오월의 노래'는 이들의 노래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다.

올해 공연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음악 장르나 퍼포먼스에 제한은 없다. 또 전체 50여팀의 공연팀 중

18팀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연주제는 편견, 폭력, 차별, 부조리에 맞서는 시대정신,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 등이며, 참가자는 '오월의 노래', '한국민중가요', '자유곡' 중 선택, 공연주제에 맞게 편곡해야 한다. 참가방법은 참가곡 선정 후, 음원 또는 실연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폼(https://forms.gle/NGKxoPiXfA9oaCCJ7)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며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문의 062-682-051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디자인진흥원, 신규 디자인 개발 참여 기업 모집

지역 제조기업의 디자인 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2023 광주산업디자인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다음달 4일까지 신규 디자인 개발 지원과제에 참여할 지역 제조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모집한다.

진흥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에서 양산화,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 제품의 시장 창출 및 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기업 우수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디자

인 개발 지원' 분야는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디자인 개발 후 양산화를 전제로 참여하며 최대 38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화를 위한 '창업기업 디자인개발지원'은 창업 7년 이내의 제조기업 및 디자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4월 4일 오후 5시까지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www.rdcdp.or.kr)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